



태권도진흥재단, 무주군 태권도협회에 용품 기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 이하 재단)은 태권도 활성화 및 지역 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무주군 태권도협회에 태권도 관련 용품을 기부했다.

지난 28일, 재단 이종갑 사무총장과 무주군 태권도협회(이하 협회) 이도우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권도원 운영 센터에서 기부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한 물품은 재단 보유의 기부 물품으로 트레닝복과 헤드기어, 태권도화, 유급자·유급자 띠 등 태권도 관련 용품 2천여점으로 협회를 통해 무주군 태권도시범단 등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재단 오용환 이사장은 "무주군 태권도시범단은 지난해 전국 대회에서 다수의 입상과 브라질 상파울루 초청공연 등 국기 태권도를 일타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무주군 시범단이 더욱 발전하는데 있어 우리 재단도 적극 도움이 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민주평통 순창군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창군협의회(회장 운영식)는 지난 28일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자문위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분기 주제인 2023년 남북관계 전망과 한국 정부의 과제로 자문위원의 이해 제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실시했으며, 정책건의를 위한 자문위원 토론회 및 설문지 작성, 협의회 보고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윤 회장은 "2023년 민주평통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 한해에도 자문위원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여성이용소방대, 장애인 복지시설에 악기 기부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일) 남원여성이용소방대가 장애인 교육재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햇빛에 난타용 북 2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햇빛은 중증발달장애 및 뇌병변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개인위생 및 주거생활훈련, 의·식·주 자립생활훈련, 문화 체육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재활을 돕는 기관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 진행

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 대신파출소(소장 정일섭)는 최근 관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마을 이장단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직접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 활동 일환으로 이장단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예방 방법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토요일이 좋아! 월간 스포츠 대회 ‘호응’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포켓볼·탁구·도미노 등 정기 진행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관장 최정선)이 월간 스포츠 대회를 열어 청소년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지난 28일 청소년문화의집은 박학을 맞아 최근 ‘토요일이 좋아! 월간 스포츠 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주말에 청소년문화의집을 보다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아띠’ 회의를 통해 기획됐다. 대회명인 ‘토요일이 좋아!’는 사전 네이밍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주말 스포츠대회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구석해 3회기로 진행했고, 제1회 포켓볼대회, 2회 탁구대회, 3회 도미노대회로 약 8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특히 회기별 대회 우승 청소년에게는 소정의 상품과 문화의집 내 이달의 MVP 명단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높은 기대와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대회에 참여한 포켓볼대회 우승자는 “평소에 포켓볼을 많이 연습했었는데 우승까지 하게 되어서 그동안의 노력까지 보상받는 것 같아 뿌듯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최정선 관장은 “방학기간과 더불어 주말에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재미있고 특별한 활동을 제공하



고자 했다”며 “이번 스포츠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매월 이색 스포츠 대회를 기획해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문화의집에 관심을 가지고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요일이 좋아!’ 스포츠대회는 청소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매월 2, 4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SNS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검색 또는 전화(063-262-7942)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인구학 권위자’ 조영태 서울대 교수 특별초청 강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8일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공직자 380명을 대상으로 조영태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특별강의를 실시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초의 인구학 박사로서 베트남 정부 인구정책 자문 등을 역임 중이며,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정해진 미래’, ‘인구 미래 공존’ 등이 있다.

이날 교육에 앞서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하고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에 앞장선 넷째가 가정의 된 공직자에 대해 다중이 가족 베스트 기법과 수어식도 진행했다.

이번 인구교육은 “인구를 읽는 미래, 희망을 열다”라는 주제로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인 인구를 분석하고, 앞으로 인구학적 상상력으로 김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인구 미래 기획 전략으로 위기감 뒤에 숨겨진 성장 동력을 새롭게 기획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에 공직자들이 관심을 갖고 인구 활력으로 인한 사회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김제시의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수 곳곳 사랑의 성금·장학금 기탁 잇따라

장수군에 취약계층 지원과 애환교육진흥재단 발전을 위한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수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육종순 센터장 이미지)는 지난 28일 장수군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440여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장수군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가게(중요의류매장에서 발생하는 성금이다. 행복한 가게는 집안에서 발생하는 자기에 필요 없는 물건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원의 순환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군민들에게 알리면서, 기증받은 물건을 매장에서 판매하여 수익금을 군민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미지 센터장은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룬 성금으로 장수군취약계층에 보탬이 되어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장수군 산악연맹(회장 이순창)에서는 애환



교육진흥재단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순창 회장은 “장학금 혜택을 받는 지역의 학생들이 맘껏 꿈을 펼칠길 바란다”며 “수혜자가 지역의 큰 인재가 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23년 11월 28일 52(목) (주)전주매일 전북 가0016

장수 계남면, 창원 자은동과 고향사랑상호기부 협약

장수군 계남면(면장 최재원)이 지난 28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창원특례시 진해구 자은동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두 자치단체 소속 직원과 주민자치위원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계남면을 대표해 최재원 계남면장과 류명용 주민자치위원장이, 자은동을 대표해 김의화 자은동장과 박용철 주민자치위원장이 협약식에 서명했다.

협약을 통해 두 자치단체는 소속 직원과 지역주민 간 상호 도시에 기부하기로 하고, 교차 홍보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공무원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27일 군청 군민화관에서 공무원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간담회로 환경미화, 행정사무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50여 명이 골고루 참석했다.

군수와의 질의응답에서 공무원 직원들은 직무능력 향상 교육, 호봉, 공무원노동조합의 임금교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개진했다.

최훈식 군수는 “업무 여건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선의 개선방향을 찾아서 직원들이 근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용담향교 춘기 석전대제 봉행

진안군 진안향교(전교 최경호)와 용담향교(전교 김상기)는 지난 28일 지역 내 현관 및 제관, 유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기 석전대제를 각각 봉행했다.

석전대제란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된 의식행사로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진안향교에서는 진안향교(도 문화재 자료 14호)와 용담향교(도 문화재 자료 17호)에서 매년 봄 가을을 2회 치러지고 있다.

이날 봉행에서 진안향교는 초헌관에 전태문 유림, 아헌관에 이한진 유림, 종헌관에 박상열 유림회원이 맡았고, 용담향교는 초헌관에 전충선 군수, 아헌관에 김민규 군의장, 종헌관에는 전용태 도의원이 맡아 제향 행사를 진행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순창 향교 춘기 석전대제 봉행

순창 향교는 지난 28일 공기 제2574년을 맞이하여 향교 대성전에서 유림, 군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춘기 석전대제는 최영일 순창군수가 초헌관을, 신정 이 순창군의회의 의장이 아헌관을, 김용식 순창군 노인회장이 종헌관을 각각 맡아 헌작(제례시 술잔을 올림)했다.

석전대제는 문묘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과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순창향교는 중국의 5성(공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 10월(공자의 뛰어난 제자 10명), 송나라의 6현(주돈이, 소옹 등)과 우리나라 동국 18현(설총, 최치원, 안향, 정몽주 등)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예수병원, 인공지능 심장지 예측 프로그램 도입

예수병원(원장 신충식)은 인공지능 기반 환자들의 심장지 예측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지난 달 28일 밝혔다.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에이아이트릭스(AITRICS, 대표 유진규)는 병원 내 응급상황 조기 예측 솔루션인 AITRICS-VC(바이탈케어)를 개발해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명확한 근거가 요구되는 의료분야에 직면한 이슈들을 해결하고 있으며, 이번 예수병원과 협력해 최첨단 기술력으로 의료분야의 인공지능(AI)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AITRICS-VC(바이탈케어)는 환자의 이상징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생체 신호뿐만 아니라 혈액검사 결과 및 의식상태, 환자의 나이 등 총 19가지의 종합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인 인공지능(AI) 심장지 예측 프로그램이다.

병원 측은 의료 AI를 통해 입원 중인 중환자들의 예측결과를 사전에 분석해 임상 현장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로 실효성과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조이복 기자

Table with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Jeonju Maeil' newspaper, including website, phone numbers, and address.